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BKS Economy Monitor

Focus on Week: 2Q26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 반도체 호황과 대비되는 심화된 양극화와 신용위험

양극화는 익숙한 주제지만 '2026년 2/4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는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주제를 던져 줌 ➡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여전히 불안한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기록 중이다. 이 강세의 배경은 전쟁 뉴스에 둔감해진 투자심리도 있지만 연일 이익 전망치를 갈아치우고 수출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반도체의 호황과 이를 뒤따라가는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에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1/4분기 GDP 성장률의 주된 이유일 뿐 아니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전망치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는 주가지수가 가리키는 것만큼 호황일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가 호황이라면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장식하지도 않을 것이다. 눈부신 호황을 구가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호황이 여전히 남의 일인 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고 기록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뉴스들이 나오지만 전체 노동시장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 여건은 후퇴하는 흐름이다. 극심한 양극화가 반도체 및 수출 호황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익숙한 주제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6년 2/4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는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주제를 던져준다.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2/4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부분의 언론과 투자자들의 시선은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 가계대출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걸리는 신용부담 및 위험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고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전자료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이번 서베이에서도 신용위험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기확장기가 종료되어 둔화기로 진입하거나 또는 경기침체가 유도되는 흐름이 신용위험 사이클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용위험이 낮고 자금 조달이 용이한 국면은 투자확대 등을 통한 경기확장을 담보하지만 신용 상황이 위축되는 국면은 당연히 경영 상황도 위축시키고 부도가 연이어 발생하며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는 국면은 생산 및 기업활동 단절과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되며 경기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침체로 가는 계기가 된다.

Economist
정 용 택
02)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 예 슬
02)6915-5526
chchu93@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차주들 모두 2분기는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지만 대출수요와 대출태도를 비교해 보면 더 취약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음 ➡ 가계 부분은 주택대출보다는 일반대출 위험이 더 높음

2026년 2/4분기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기업과 가계 모두 2/4분기는 지난 분기보다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상승했다. 중동 상황 악화가 기업 신용위험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변화 폭과 수준이다. 대기업은 변화 폭이 이례적으로 큰 폭이었고 중소기업은 전기대비 상승하기도 했지만 높은 신용위험지수가 만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 스럽다.

신용위험지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한 신용위험은 대출태도 및 대출수요를 비교해 봄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판단해 볼 수 있다.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타이트해지면 차주는 자금 상황의 악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계 부문의 대출 태도를 보면,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모두 금융기관 대출태도가 강화되었다. 부동산 억제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신용대출 포함한 일반 대출도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차이는 대출 수요에서 발생한다. 가계주택대출은 정부 규제로 대출태도가 강화되었지만 대출수요도 억제됨으로써 대출수요와 대출태도의 갭은 크게 축소되었다. 가계일반대출은 대출태도는 강화되었지만 대출수요는 여전히 크게 증가함으로써 대출수요와 대출태도의 갭은 크게 벌어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 대출수요와 대출태도의 갭은 신용카드 연체율과 같은 가계 신용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이 갭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위험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가계부문 신용위험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계주택부문에 국한되는 것일 뿐 가계일반대출은 여전히 높은 신용위험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 일반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약한 고리들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더 심화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특히 일부 대기업으로의 이익 쏠림이 심하고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도 급등하는 현상 주목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문은 기업 부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신용위험지수가 상승했지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 부문은 신용위험지수가 상승하고 대출수요지수가 증가했지만 2/4분기 금융기관 대출태도는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것이고 대출수요와 대출태도의 갭도 축소된 모습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다행히 금융기관 대출태도가 전분기 수준 정도를 유지(정부의 정책적 배려 등이 작용)하고 있으나 대출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금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업황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라기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가 대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조달하는 통로는 더 좁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금사정 격차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 심화되는 양극화 상황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더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1분기 어닝시즌에서 기대하듯 상장기

업 이익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 수익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을 뿐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 준다.

한가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소수 기업에 대한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소수 기업(상장기업 중 영업이익 규모 상위 10개 사)의 이익 비중(상장기업 전체 대비)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국면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도 크게 상승하는 국면과 겹치는 모습이다. 이유를 추론해 보면,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의 악화는 경기 확장기라고 하더라도 기업 신용에 대한 우려를 자극해 외부자금 조달 통로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부도위험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극심한 양극화와 신용위험 현실화는 결국 경기사이클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사이클을 보면, 소수기업의 이익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국면이 경기 위축 국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곱씹어 볼만한 부분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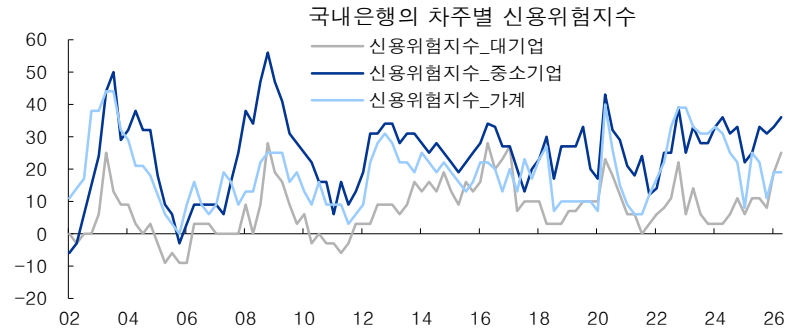
당장에 심각한 위기로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음으로써 걸음을 느리게 하거나 결국에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지금 투자자들이나 경제참여자들의 시선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쏠려 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미국 사모신용 문제에서 보듯 전쟁 이슈가 잦아들고 나면 하반기 이후는 신용위험 이슈에 점차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돌발적인 충격에 의한 불규칙 요인이고 여전히 장기화 가능성보다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반면 사모신용문제와 이를 포함한 점증하는 신용위험은 투자가 견인하는 이번 경기사이클의 특징과 이로 인해 심화되는 양극화가 초래하고 있는 체계적인 위험에 가깝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26일자 IBKS Economy Outlook ‘Dissension: 쏠림과 양극화가 만들어내는 위기의 뇌관’ 참조) 돌발적인 이벤트가 지나면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사모신용 문제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경제에도 경기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위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익숙하고 식상한 주제로 당연시하거나 간과할 수도 있으나 심화되는 양극화는 정책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결정을 어렵게 하며 효과를 희석시킨다. 당장에 심각한 위기로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음으로써 걸음을 느리게 하거나 결국에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림 1. 2/4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부분의 언론과 투자자들의 시선은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 가계대출 태도 변화에 초점 ➡ 가계 강화, 중소기업 유지, 대기업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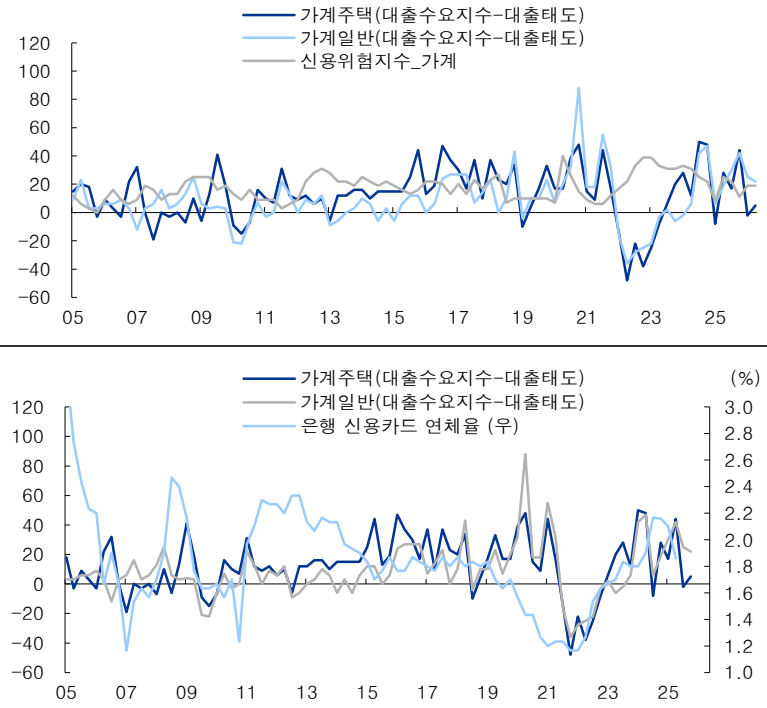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2. 차주별 신용위험지수는 모두 상승 ➡ 중동전 여파로 대기업 크게 상승, 중소기업 고공행진 지속, 가계 부문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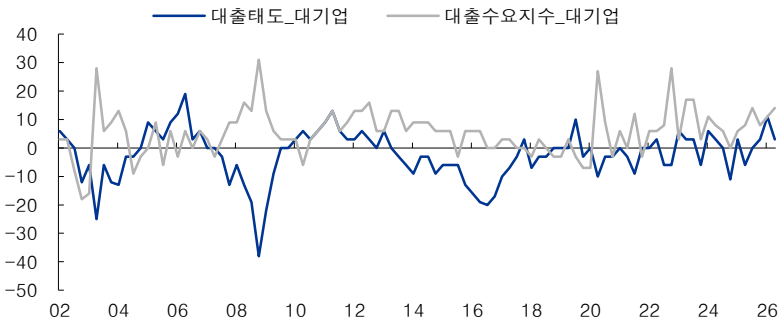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3.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하락했지만 주택과 일반 대출 신용위험은 차이가 커진 것으로 판단 ➡ 대출수요와 대출태도 갭이 줄어든 주택대출과 달리 일반대출은 여전히 갭이 큰 상황 ➡ 생활자금대출과 자영업 대출이 주를 이루는 일반대출자는 자금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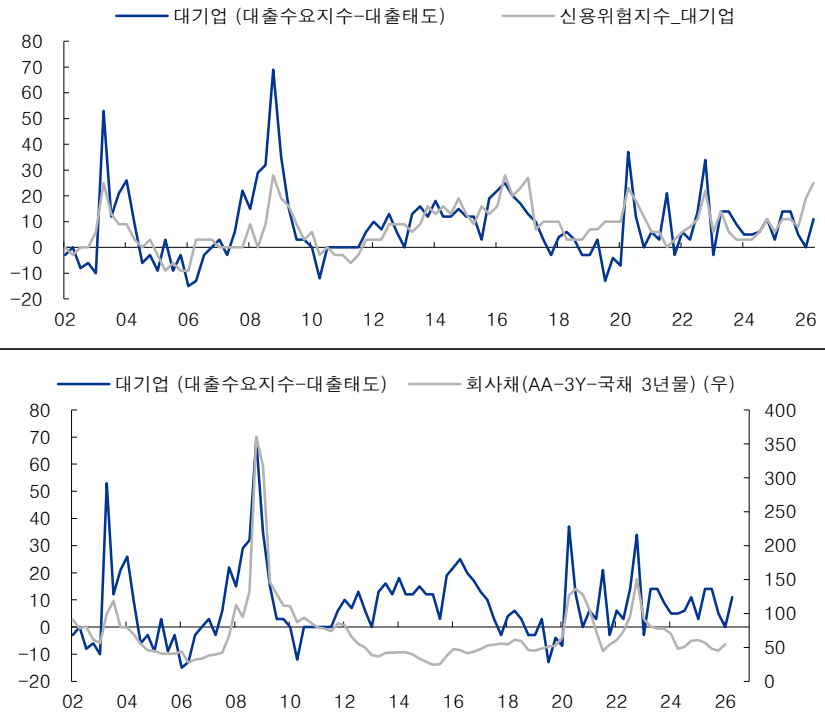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4. 대기업 신용위험지수 상승했고 대출수요도 늘었지만 금융기관 대출태도가 완화됨으로써 대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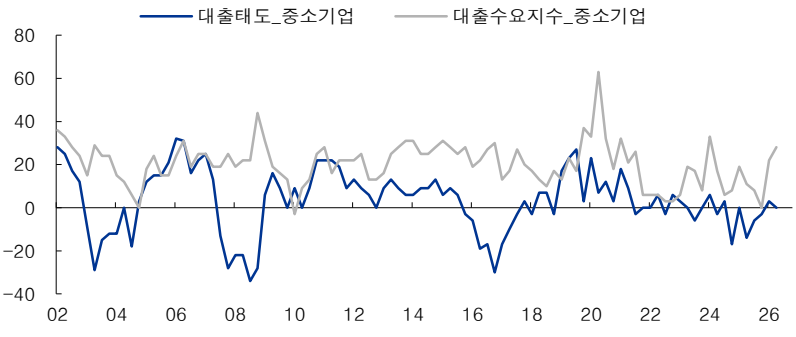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5. 중동전 여파로 크게 상승한 신용위험지수와 달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출수요와 대출태도 갭은 실제 대기업 신용위험과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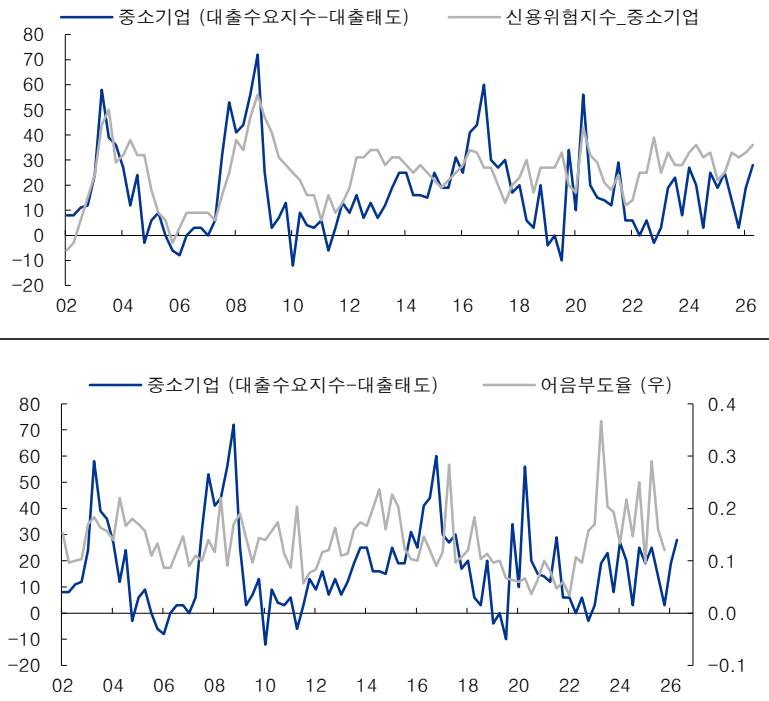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6. 반면,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대출태도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 큰 폭으로 증가 ➡ 자금 사정 더 악화되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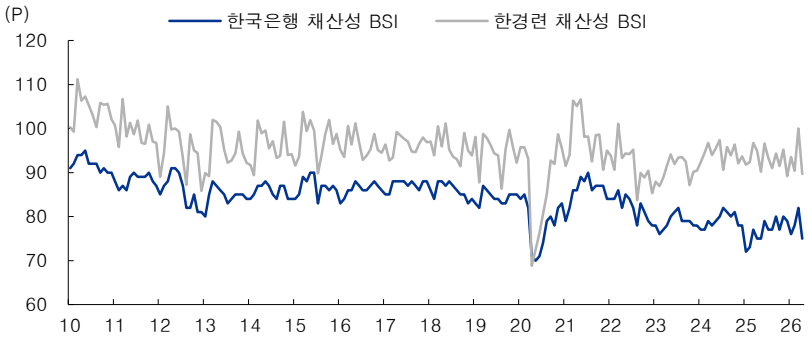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7. 중소기업의 높은 신용위험은 이미 만성화되는 상황이나 당연하게 치부하는 것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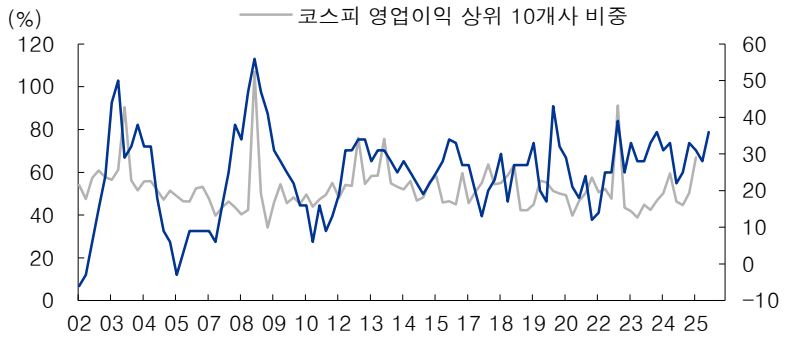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IBK투자증권

그림 8.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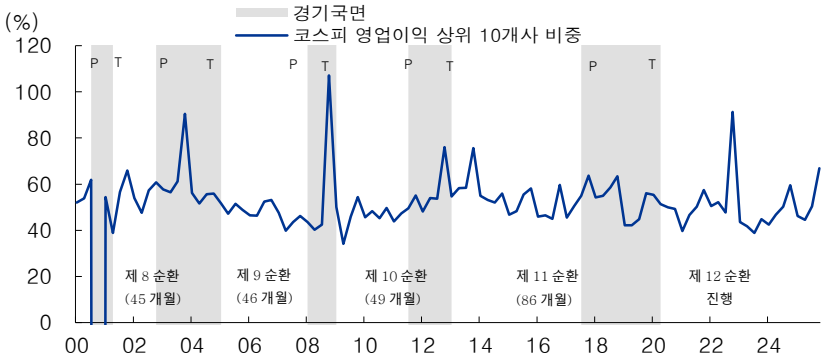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IBK투자증권

그림 9. 흥미로운 것은 소수 기업에 대한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



자료: 한국은행, 에프엔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10. 과거 우리나라 경기사이클을 보면, 소수기업의 이익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국면이 경기 위축 국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곱씹어 볼만한 부분



자료: 통계청, 에프엔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